"사랑해 누나" 연예계 연상연하 커플 유행

최지우·비·추자현 부부 등 잇따라 탄생 1~2살 차이 보편 … 10살 차이 나기도 사회·문화 변화 "공개연애 거리낌 없어"

원조 한류스타 최지우(43)가 '꽁꽁 숨겼던' 신랑이 연 하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연상녀-연하남 커 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인 커플의 혼인 비율이 점차 증가세인 것과 맞물려 연예계에서도 잇 따라 여자가 연상인 커플이 탄생하고 있다.

◇ 한두살 차이는 예사…17~18세 차이 나기도

1997년 '사랑해 누나'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연 상녀연하남 커플은 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현재 는 사정이 다르다. 한두살 연상은 티도 안 날 정도로 나 이차가 많이 나는 '누나'와 사랑에 빠지는 연하남이 이 어진다.

지난달 29일 깜짝 결혼식을 올린 최지우는 신랑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소개해 궁금증을 키웠다. 나이 역시 함구했는데, 연예계에 따르면 신랑이 최지우보다 꽤 어린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화촉을 밝힌 빅뱅의 태양(30)-배우 민효린 (32), 지난해 10월 첫딸을 얻은 가수 비(36)-배우 김태희 (38), 첫아이 출산을 앞둔 한중 커플 추자현(39)-위샤오광 (于曉光·37) 부부는 두살 차이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배우 송중기(33)-송혜교(36), 2016 년 결혼한 배우 안재현(31)-구혜선(34) 부부는 세살 차이 가 난다. 또 배우 진태현(37)-박시은(38)과 배우 정우(37)-김유미(38) 부부는 한살 차이다.

여성이 1~3세 많은 커플은 연예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으로도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동갑 커플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진다. 이제는 나이차가 그 이상 이 돼야 '뉴스'다.

가수 백지영(42)은 9세 연하 배우 정석원(33)과 결혼해 2016년 첫딸을 낳았다. 가수 바다(38)는 10세 연하의 사업 가와 지난해 화촉을 밝혔다. 바다는 애초 신랑이 9세 연하 라고 했으나 최근 방송에서 "사실은 10세 연하"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배우 한혜진(37)-축구 스타 기성용(29), 배우 김가연 (46)-프로게이머 임요환(37)은 나란히 여덟살 차이가 난 다. 이 두 부부는 또한 나란히 2015년 딸을 낳았다.

혼성그룹 룰라의 채리나(40)-야구선수 출신 박용근 (34) 부부는 6세 차이가 나고, 배우 박해미(54)는 9세 연하 의 남편과 재혼한 러브스토리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왼쪽 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지우, 송중기·송혜교, 김태희·비, 기성용·한혜진 부부

그런데 이 모두를 능가하는 커플이 있다. 현재 KBS 2 TV 관찰예능 '살림하는 남자들2'에 출연 중인 가수 미나 (46)-류필립(29) 부부는 무려 17세 차이를 극복하고 올초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평범하지 않은 사 랑과 결혼 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 중국에서 활동 중인 배우 함소원(42)은 무려 18세 연하의 중국인 남성과 올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상연하 연인도 속속 탄생

배우 박신혜(28)는 한살 연하 배우 최태준(27)과, 배우 오연서(31)는 두살 연하 배우 김범(29)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지난달 잇따라 밝혔다.

가수 아이비(36)와 8세 연하 뮤지컬 배우 고은성(28)은 한차례 결별했다 지난해 재결합해 교제 중이고, 걸그룹 씨스타 출신 보라(29)와 3세 연하인 그룹 빅스타의 필독 (26)도 열애 중이다.

MBC

배우 신민아(34)는 5세 연하 김우빈(29)과 연인이고, 배 우 한채아(36)는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막내 아들이자 4세 연하인 차세찌(32)와 오는 5월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또 빅뱅의 지드래곤(30)과 한살 연상의 애프터 스쿨 출신 배우 이주연(31)은 올초까지 세 번에 걸쳐 열 애설에 휩싸였다. 양측은 매번 "친구사이"라는 입장이지 만 열애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 앞서 배우 주원(30)과 가수 겸 배우 보아(31), 배 우 남주혁(24)과 배우 이성경(28) 등도 연상연하 커플이 됐다가 헤어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계에서 한두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은 새롭지 않은 것 같다"며 "또한 예전에 는 연상연하 커플이 조심스러웠다면 요즘에는 공개연애 를 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채아 "예비 엄마 됐어요"

결혼 앞두고 임신 6주차

다음달 결혼하는 배우 한채아(36·사 진)가 아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채아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6주차에 접어든 예비엄마가 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5월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막내아들이자 4세 연하인 차세 찌(32)와 결혼한다.

한채아는 "결혼 준비 중 갑작스레 찾 아온 새 생명이라서 더욱 소중한 축복 으로 느껴진다"며 "아직 안정이 필요 한 시기라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만, 기 쁜 일이니만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 들께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여러분의 축복



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배우, 좋은 사 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 논란 밝혀지나

'그것이 알고싶다' 7일 방영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가 대한 빙상경기연맹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다 고 4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7일 밤 11 시15분 방송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된 빙상연맹 논란과 청와대 국민청원 60만 명을 돌파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 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사태(사진)를 파고들 예정이다.

제작진은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프 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 빙상연맹 문

제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글이 상당수 올라왔고, 그에 앞서 2014년 소치동계 올림픽 직후에도 유사한 요청이 많았 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국내외 빙상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분석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 장면을 분석 및 재구 성해보고, 사건의 실체와 기자회견의 진실이 무엇인지 검증해본다.

제작진은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 지 살피고 이 건이 빙상연맹의 뿌리 깊 은 문제와 닿아 있는 건 아닌지도 파헤 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KBS2

KBS1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C/SBS

	KDOT	NDOL	IVIDO	NDC / OD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꼭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55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집(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사랑의 가족		00 12 MBC 뉴스 20 UHD 부잣집 아들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0	20 공룡 메카드 5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00 이웃집 찰스 (재)		55 닥터 365
2	20 영상앨범 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40 에어로버	00 제32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3	05 산의 날기획 아버지의 숲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0 통일전망대 5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뉴스콘서트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6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터닝메카드 R 30 주간연예수첩	50 생방송 빛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5 MBC 뉴스데스크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특집다큐 자카르타에서 온 손님	50 인형의집	55 2018 남북 평화 협력 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2018 남부 평하 현렬 기위
9	00 KBS 뉴스9 50 KBS 스페셜			55 2018 남북 평화 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
10	45 UHD 숨터 5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꼭잡고,지는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0	30 사이언스 오디세이 신비한 인체의 비밀	10 해피투게더	10 이불 밖은 위험해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2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어리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랄랄라 뿌우 09:00 뚝딱맨 09:15 두다다쿵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가자미 버터구이와 미나리 새우샠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강형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오! 나의 미자 씨〉 13:40 다큐 시선 〈최저임금 인상 그 후〉 EBS1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랄랄라 뿌우(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9:30 EBS 뉴스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라면을 똑같이 만들어라〉

19:50 부모성적표 〈집에서도 아이돌인 엄마〉 20:40 세계테마기행 〈지중해 황금루트 스페인, 모로코 낯설지만 매혹적인 인살라 모로코〉 21:30 한국기행 〈엄마의 소쿠리 4부 망태기에 산이 들었네〉 21:50 다큐 시선 〈용기있는 외침, #미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55 스페이스 공감 25: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외관 규모까지 고려해야 맞다. 48년생 천군만마를 얻음 과 같이 흡족하리라. 60년생 성부에 집착 말고 최선 다 하자. 72 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84년생 선입견 에 의한 추측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행운의 숫자: 42, 10



37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할 일 미루지 말라. 49년생 눈앞에 놓 여 있더라도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하라. 61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73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85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98, 27



38년생 예상치 못 했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 있다. 50년생 개 의치 말라. 62년생 단편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은 판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74년생 얼마 정도의 규모와 강도로 지속하느냐의 문제이다. 86년생 신호를 주목하자. 행운의 숫자: 28, 51



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63년생 계속될 것이 다. 75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일나는 수 있다. 87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의미가 없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47,88

39년생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51년생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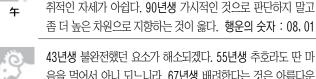
40년생 요인을 해소하자. 52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일이 벌 어질 수다. 64년생 골고루 살펴 보아아만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76년생 합의하에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88년생 변화에 상 당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겠다. 행운의 숫자: 24,70



41년생 맹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53년생 빠른 수단을 취하는 것이 국면을 타개하는데 일조한다. 65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라. 77년생 경계해야 할 때다. 89 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59,57



4월 5일(음 2월 20일 丁卯)





음을 먹어서 아니 되느니라. 67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79년생 지금은 내색할 때 아니로다. 91년생 방법을 어떻 게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52, 48

42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괘념치 말라. 54년생 필요 없다. 66

년생 착실한 실행이 알찬 결실 맺게 한다. 78년생 도전하려는 진



44년생 자연스럽게 전환되리라. 56년생 작은 것 아끼려다가 소 중함을 잃을 수 있다. 68년생 눈앞에서의 현혹은 허황된 것이니 빨리 접을수록 이익이다. 80년생 공로의 금자탑이 눈부시게 빛 나겠다. 92년생 자연스럽다면 최상이다. 행운의 숫자: 40,87



45년생 짜임새 있게 관리해야 할 판국이니라. 57년생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됨을 알고 있자. 69년생 진용이 흐트러진다면 회의가 클 수밖에 없다. 81년생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되리라. 93년생 미래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14, 25



34년생 가장 적절한 것을 취하라. 46년생 서로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 58년생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중차대한 것을 놓치게 됨을 알라. 70년생 해악이 예상되면 제거해야 한다. 82년생 외 형에 현혹되다보면 큰일 나는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5, 38



35년생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47년생 요령이 있어야 능률 적이다. 59년생 합리적이어야 설득력을 갖게 된다. 71년생 의도 적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 있으니 살펴보아라. 83년생 무 난한 상태에서 성과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57, 7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